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모라힐리 주지사가 지금까지 원성이 자자했던 건강보험 사전승인제도를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폐지하며 의료제도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전승인으로 인한 지연과 행정비용도 줄이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사전 승인 대폭 폐지... 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응급 및 필수 진료 승인 절차 없애고, 보험 변경 시 치료 연속성 보장
 MA주 의료개혁 첫 시도... 미 의료제도 본질 개혁은 아니지만 큰 의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가 의료보험 사전 승인 제도를 대폭 손질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보험 심사로 치료가 늦어지는 구조를 개혁한다. 지금껏 미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힐리 주지사의 첫

걸음은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4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제도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료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 기사 읽기〉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 보험부(Division of Insurance, DOI)는 주 전반의 사전 승인 규정을 개정해 응급 및 긴급 진료, 1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일부 처방약 등에 대해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사전 승인 제도는 의사가 특정 치료나 약을 제공하기 전 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수술에서 길게는 수 ▶▶12면으로 계속

노임 국토 장관, ICE 작전 중 미국 시민에도 시민권 증명 요구 가능

이제 시민권자도 시민권 증명서 지참해야 하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크리스티 노임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에게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임 장관은 1월 15일 백악관 인근 기자회견에서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이 특정 단속 대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 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중 일부 미국 시민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노임 장관은 “우리는 항상 표적 단속을 하고 있다” 며, “단속 대상자 주변에 있는 개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왜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 말했다

▶▶6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코리아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 3월 1일부터 적용

H-1B, F-1, O-1 비자 등 물가상승 반영해 비용 인상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인상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월 9일 발표한 최종 규정을 통해, 이민국의 프리미엄 심사 서비스 요금을 오는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USCIS 안정화법'에 따라 2년마다 물가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신청 종류에 따라 과거 수수료보다 \$95에서 최대 \$150까지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프리미엄 심사 서비스 유지, 심사 절차 개선, 적체된 신청서 처리, 전반적인 이민 및 귀화 심사 서비스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물가를 반영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부터 적용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I-907양식, 즉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일반 심사보다 빠른 결정을 원하는 신청자를 위한 제도로, 주로 취업 및 유학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한다. 대상에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취업이민 청원서(I-140),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I-539) 등이 포함된다.

심사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취업허가 신청서(I-765)는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유학생 신분 전환과 관련된 일부 I-539 신청(F-1,

F-2, M-1, M-2, J-1, J-2)은 최대 30일, 국가이익면제(E21)나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E13) 카테고리의 I-140 신청은 최대 45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H-1B, F-1, O-1 등 주요 취업·유학 비자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일정과 취업 및 학업 시작 시점을 맞추려는 신청자들은 변경된 수수료와 시행 시점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to-increase-premium-processing-fees>

hsb@bostonkorea.com

국무부 75개국 국민 이민심사 전면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심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1월 14일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이민 비자 처리 절차를 오는 1월 2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동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강화 행정 조치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복지나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영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이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즉 관광·상업용 비자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전체 기사 읽기〉

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악용해 온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며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심사는 외국인의 복지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 국가 명단에는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국무부는 전했다. 구체적인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십 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정책 전반에서 '공적 부담'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행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HAPPY NEW YEA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丙午)년(붉은 말의 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플루 기승,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전역서 '극히 높음' 수준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이번 겨울 플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글로벌은 13일 매사추세츠 주 전역이 최근들어 최악의 플루시즌을 겪고 있으며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등도 매사추세츠 못지 않는 플루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부에 따르면 플루 유사 증상을 보고한 환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28일로 끝난 주에 12%를 약간 웃돌다가, 1월 3일로 끝난 주에는 11% 아래로 떨어졌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뉴잉글랜드 주에서 플루 활동 수준을 '극히 높음'으로 분류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부 감염병·과 학실험국의 의료 책임자인 래리 매도프 박사는 "수치가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일부 시즌에서는 하락 뒤 또 한 차례 상승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 플루 시즌으로 인한 매사추세츠 사망자는 현재까지 6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는 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33명보

다 두 배에 달한다. 베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 바이러스·백신 연구소의 덴 바로우치 소장은 "매사추세츠에서 소아 플루 사망이 한동안 드물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플루 시즌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도프 국장은 이번 조기 급증의 배경으로 인플루엔자 A H3N2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브클레이드 K'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가 면역 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바로우치 소장은 이번이 면역계가 인식하는 부위에 여러 변이를 포함해 백신이나 과거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부분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플루 백신 접종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영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즌 플루 백신은 소아 입원을 70%에서 80%까지, 성인 입원은 30%에서 40%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접종률은 낮아졌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현재 플루 백신을 맞은 주민이 약 3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37%보



다 줄었다.

병원 현장에서 플루의 급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메스(UMass)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서는 지난해 10월 초 이후 현재까지 플루 양성 판정이 2,615건에 달해, 지난 시즌의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의 티모시 보드먼 전문의는 "현재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20%가 플루와 관련돼 있다"며 "하루 동안 접하는 모든 응급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A 유행이 진정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본

다. 플루 시즌은 보통 두 단계로 전개되며, 2월과 3월에는 인플루엔자 B가 뒤따라 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나 RSV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 당국은 손 씻기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삼가는 기본 수칙이 전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플루는 가정이나 긴급진료센터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호흡 곤란이나 흉통, 의식 혼란, 입술이나 손가락이 푸르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장명술 Myong Sool Chang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정한웅 HanWoong Chung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하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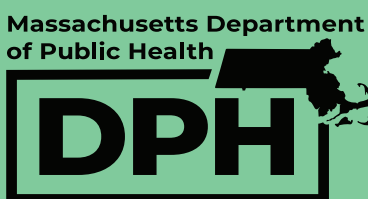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연합뉴스 미션협 회원사 세한연 회원사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AN. 16th - JAN. 22nd,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FRIED KOREAN BLOOD SAUSAGE

A beloved street-food favorite, perfect for sharing or enjoying as a hearty bite with H Mart's quality ingredients.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길거리 간식, 순대튀김을 H Mart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Zucchini Green Squash 그린 호박 LB \$0.99	U.S.A. #1 Potato 감자 LB \$0.49	Taiwan Spinach 대만 시금치 LB \$1.99	NATURIPE Strawberry 딸기 2 LB/PKG \$4.99	Bitter Melon 비터 멜론 LB \$0.99	Korean Singo Pear Premium Gift Box 한국산 신고배 특산품 선물박스 PRODUCT OF KOREA BOX \$39.99	Cherry 체리 1 LB/PKG \$5.99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9.99	Kabocha 단호박 LB \$0.99	Mandarin with Leaf 잎 달린 만다린 LB \$1.99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Fresh Peeled Durian 간 두리안 1.1 LB/PKG \$24.99	Choy Sum 초이섬 LB \$1.29	Honey Tangerine 허니 텐저린 LB \$2.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Pork Jowl Meat 돼지 향정살 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9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Fluke from Jeju 제주산 활광어 PRODUCT OF KOREA/LB \$21.99	Fresh Monkfish Tail 아구 꼬리 LB \$3.99
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23.99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6.99
Frozen Lologo Squid 한치 20-25 CM/LB \$5.99	SUHYUP Frozen Cleaned Rock Sole 수협 손질 가자미 PRODUCT OF KOREA 150-200'S/LB \$3.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작은컵 \$7.99 2.64 OZ X 6 CUPS/BOX	NONGSHIM Tempura Udon Cup Noodle Soup 농심 튀김우동 소컵 \$7.99 2.6 OZ X 6 CUPS/BOX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2.99 CORN SOUP 5.6 OZ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2.99 CHOCO CHURROS 5.6 OZ

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MILD/HOT & SPICY 4.2 OZ X 5 EA/PKG \$3.99	CHUNGJUNGONE Perilla Oil Traditional Laver 청정원 바사삭 들기름 재래 도시락김 0.14 OZ X 16 EA/PKG 2\$10.99 FOR	HAIJO Spicy Chicken Marinade Korean BBQ Sauce 해오름 매운 닭갈비 양념 1.85 LB \$3.99	SAJO Tuna Sauce 사조 참치액 31.7 FL OZ \$6.99	SAJO Red Snow Crab Sauce 사조 홍게액 31.7 FL OZ \$6.99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참전복죽 17.6 OZ \$5.99	PULMUONE Tempura Udon 풀무원 튀김 우동 1.07 LB \$5.99	MARUCHAN Mama Yaki- soba Stir Fry Noodles with Seasoning Sauce Base 마루찬 아끼소바 16.93 OZ 2\$5 FOR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CROWN White Heim White Cream Wafer with Hazelnuts 크라운 화이트 하임 10.02 OZ 2\$9 FOR
WOONGJIN Morning Rice Drink 웅진 아침햇살 50.72 FL OZ \$2.99	WOONGJIN Green Plum Drink 웅진 초록 매실 50.72 FL OZ \$2.99	LION Kid's Hand Soap Refill (All! Kekute) LION 아이! 깨끗해 거품형 POWDER/LEMON 20.28 FL OZ EA \$3.99 ←\$6.99	HELLO! Mug Set 헬로! 머그 세트 FLOWER/CAT 2 PCS SET \$6.99 ←\$9.99	KüHAUS Induction 쿠하우스 인덕션 (1구) STANDARD/PREMIUM -\$59.99 → -\$79.99 \$49.99 EA \$64.99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모기지 족쇄 풀려, 주택 시장 숨통 트이나

모기지 6% 주택 소유자가 3% 소유자 넘어서 락인효과 약화로 매물늘어 주택거래 증가 전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주택시장을 짓눌러 왔던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인 이른바 '모기지 락인(Lock-in) 효과' 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6%를 넘는 주택 보유자가 팬데믹 시기 3% 미만의 초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보유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초저금리 대출을 포기하기 싫어 집을 팔지 않던 흐름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그동안 주택 소유자들은 2021년 이전에 확보한 3%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잃고 6%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꺼리며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모기지 락인 효과' 가 미국 주택시장의 핵심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부동산 앱 리벤처(Reventure)의 최고경영자 닉 걸리는 모기지 금리가 구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오히려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락인 효과가 약화되고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레드핀(Redf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큰 시장 반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4% 미만 금리 보유자까지 사실상 '락인 상태' 로 봐야 한다며, 이 현상이 주택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4년에서 5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사기관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4%는 어떤 금리 수준에서도 집을 팔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모기지 금리가 6% 미만이어야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컬럼비아비즈니스스쿨의 부동산 전문가 토마시 피스코르스키는 전체 주택의 약 40%는 모기지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 거래 부진과 집값 상승의 원인을 락인 효과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026년 주택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은 기존 주택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질로우(Zillow)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국부동산중개개인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은 기존 주택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설명 락인 효과가 빠르게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 부담이 완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hsb@bostonkorea.com

노임 국토 장관, ICE 작전 중 미국 시민에도 시민권 증명 요구 가능

▶▶ 1면에 이어서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과 맞물려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주 한 ICE 요원이 37세의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을 사살한 사건은 전국적인 비판과 시위를 촉발했다.

최근 수주 동안 미니애폴리스 등지에서 ICE 단속을 지켜보거나 항의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법률 참관인들이 연방 요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일시적으로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영상에서는 시민들이 "미국 시민은 신분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며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비자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시 소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이민자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집행 단속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하게 집행되면서 시민들까지 단속 현장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정헌법 4조에 따르면 법 집행관들은 합리적 범죄 혐의나 체포 및 티켓 발부 사유가 없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에게는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서를 상시 휴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속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체포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연방 이민 정책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시민권자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ditor@bostonkorea.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급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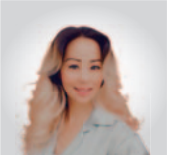













 <p>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tlee@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r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eh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gin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gin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h@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	 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l@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y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i111@hotmail.com	



마켓바스켓, 미국내 슈퍼마켓 중 전체 2위

유통분석업체 던햄비, 텍사스의 H-E-B에 2번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식료품 체인 마켓바스켓(Market Basket)이 2025년 미국 슈퍼마켓 업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라는 잡음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평가는 여전히 높았다는 분석이다.

영국계 유통 분석업체 던햄비(Dunnhumby)가 1월 9일 발표한 연례 미국 슈퍼마켓 순위에서 텍사스 기반 체인 H-E-B(H-E-B)가 다시 1위를 차지했고, 위스콘신의 우드맨스(Woodman's)가 새롭게 3위에 올랐다. 우드맨스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되며 코스트코(Costco)를 제쳤다. 이번 순위는 고객 설문조사와 재무 성과를 종합해 81개 슈퍼마켓 체인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던햄비는 2025년 조사에서 마켓바스켓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강

점으로는 '항상 낮은 가격' 전략이 꼽혔다.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매장 내 상품의 다양성, 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자체 브랜드 상품의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상위권에 오른 체인들의 공통점도 눈길을 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체인은 모두 상장기업이나 사모펀드 소유가 아니다. 우드맨스는 직원 소유 구조이고, 마켓바스켓은 단일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H-E-B 역시 가족이 지배권을 유지하는 구조다. 4위와 5위는 각각 코스트코와 알디(Aldi)가 차지했다.

마켓바스켓은 최근 소유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사회는 지난해 최고경영자 아서 T. 디몰라스(Arthur T. Demoulas)를 해임했고, 그는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회사 지분은 그의 자매들이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몰라스는 28%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해임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가족 간 분쟁은 2014년과 같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에 디몰라스가 해임되자 직원과 고객들이 대규모 항의에 나섰고, 그는 같은해 가족 간 합의를 통해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매장 운영 차질이나 광범위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던햄비의 고객 설문조사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이사회와 디몰라스 간 갈등은 5월 말 공개됐고, 그는 9월 공식 해임됐다. 이후 최고재무책임자였던 돈 멀리건(Don Mulligan)이 임시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다. 해임을 둘러싼 재판은 지난해 12월 델라웨어 행정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서 열렸으며, 판결은 올해 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sb@bostonkorea.com

2026년 보스톤 지역 대학 기숙사 비용 급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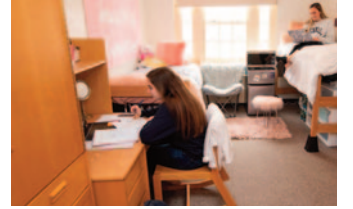
기자 = 보스톤 지역 대학 기숙사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Boston Business Journal)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보스톤 일대 주요 대학들의 기숙사와 식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이 연간 2만5천 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은 "기숙사 생활이 결코 호화롭지는 않지만, 등록금 상승과 함께 기숙사와 식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보스톤 지역 대학에서는 연간 등록금이 이미 1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거 비용까지 더해지며 전체 학비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보스톤대학(BU)의 경우, 필수 식사 플랜을 포함한 다인실 기숙사 비용이 연간 약 2만 달러에서 시작한다. 다인실 아파트 형태의 싱글룸은 2만2천 달러부터 책정돼 있다. 특히 'StuVi 2'로 불리는 33 Harry Agganis Way 기숙사의 가격은 2010~2011학년도와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이곳에서 더블룸 스위트는 2만3천330달러, 싱글룸은 최소 2만5천 달러가 필요하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서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8인실 스위트 기준 2학기 기숙사 비용은 1만6천60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필수 식사 플랜을 포함하면 최소 2만348달러로 오른다. 싱글룸이나 주방

<전체 기사 읽기>



옵션을 선택할 경우 비용은 약 2만4천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다.

하버드대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등록금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거 비용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로피우스(Gropius) 기숙사의 일반 객실은 식비 포함 약 1만 달러 수준이지만, 아파트형 기숙사는 2학기 기준 1만6천500달러부터 시작한다. 1베드룸 학생 아파트의 경우 2만2천356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기숙사 비용이 급등하자, 여러 대학들은 자체 주거 공급을 늘리는 데 나서고 있다. 브랜디시, 노스이스턴, 터프츠 대학은 모두 2026년을 목표로 신규 기숙사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터프츠대는 MBTA 그린라인 메드퍼드/터프츠역 인근에 66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은 "대학들이 주거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보스톤 지역 대학 주거 비용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교육·도시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AN. 15TH - JAN. 22ND, 2026



HAIO **LIMIT 2**

**Yuza Tea with Honey
 & Ginger Tea with
 Honey Bundle**

**해오름 유자차
 +생강차 번들**

1 YUZA + 1 GINGER (4.4 LB/BOX)



\$9.99



CHEFLINE 4-Hole Egg Fry Pan

**셰프라인
 4구 에그 후라이팬**

~~Reg. \$29.99~~

\$9.99

EA LIMIT 4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플로리다 은퇴, 중산층에게는 점점 멀어진다

부유층 은퇴자는 유입, 중산층·서민 은퇴자는 떠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로리다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누구나 은퇴 후 찾는 ‘은퇴자의 천국’으로 여겨졌다. 따뜻한 날씨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세금 부담이 적은 환경 덕분에 중산층과 노동계층 은퇴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의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은퇴 인구 구성은 뚜렷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고소득 은퇴자들은 계속해서 플로리다로 유입되는 반면, 생활비 상승을 견디기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 은퇴자들은 다른 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시간에서 플로리다 서부로 이주한 미셸 버틀러와 웰스 채핀 커플은 이런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라소타 인근 레이크우드 랜치의 리조트형 신규 주택단지에서 약 9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해 골프와 자전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플로리다 애번 파크의 은퇴자용 모바 일홈 단지에 살던 짐과 니나 코프 부

부는 반복되는 부지 임대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주택을 처분한 뒤 앨라배마로 이주했다.

이 같은 대비는 플로리다의 생활비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가격은 물론 보험료와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과거 ‘합리적인 은퇴지’라는 명성은 희미해지고 있다. 2021년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사고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콘도 유지비와 관리비도 크게 뛰었다. 한때 저렴한 대안이었던 모바 일홈 단지마저 대형 투자회사들이 인수하면서 부지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가구 가운데 연소득 12만5천 달러 이상인 은퇴 가구의 플로리다 순 유입은 최근 10년간 증가한 반면,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가구의 순 유입은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나폴리 등이 속한 콜리어 카운티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은퇴자들의 평균 소득이 기존 주민들의 소득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 유입은 주택시장에도 직

<전체 기사 읽기>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로리다의 평균 주택 가치는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오른 수준이다. 특히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 단독주택 거래 비중이 불과 몇 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었다. 초고가 주택 거래도 잇따르면서 플로리다는 점점 ‘고급 은퇴지’로 재편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산층 은퇴자들의 이탈도 눈에 띈다. 보험료와 재산세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은퇴자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플로리다에 남아 있는 서민 은퇴자들 역시 케이블TV를 해지하거나 식비를 줄이는 등 생활을 극도로 절약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플로리다는 여전히 은퇴 인구 순유입되는 주이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누구나 꿈꾸던 ‘중산층 은퇴의 낙원’에서,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을 위한 고급 은퇴지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sb@bostonkorea.com



쿠쿠, 새해 맞이 프로모션...스테인리스 내솥 무료 증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을 대표하는 밥솥 브랜드 쿠쿠(CUCKOO)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Euromonitor International)이 선정한 대한민국 1위 밥솥 브랜드인 쿠쿠는, 프리미엄 모델 구매 고객에게 99달러 99센트 상당의 폴 스테인리스 이너팟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쿠쿠 아메리카 (CUCKOO America)는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프레스티지 사일런스 프로(Prestige Silence Pro)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이미 성능과 품질을 검증받은 베스트셀러로, 미국 소비자의 다양한 식습관을 반영해 업그레이드된 미국 전용 모델(US Special Edition)이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듀얼 이너팟 호환성이다. 기본 제공되는 논스틱 이너팟에 더해, 별도 판매되던 폴 스테인리스 이너팟까지 완벽하게 호환돼 요리 목적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쿠쿠 아메리카는 이번 행사에서 스테인리스 내솥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쿠쿠의 핵심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스

<전체 기사 읽기>

테인리스 내솥은 코팅 걱정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누룽지(Nurungji) 등 구수한 요리를 구현하는데 강점이 있다.

프레스티지 사일런스 프로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 사일런트 압력 시스템(Silent Pressure System)은 기존 압력밥솥의 소음을 크게 줄여, 매립형 실린더 구조로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하면서 열 보존율을 높였다. 여기에 사일런스 스팀 실드(Silence Steam Shield) 기술을 적용해 증기 배출 소음을 약 38.5데시벨 수준으로 제어, 조용한 주방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쿠쿠의 특허 기술인 트윈 프레스(Twin Pressure)를 통해 고압 취사의 찰진 밥과 무압 취사의 고슬고슬한 밥을 한대의 밥솥으로 모두 즐길 수 있다. 무압 취사 중 뚜껑을 열어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오픈 쿡킹(Open Cooking) 기능과 수비드(Sous-vide), 나물밥 등 다양한 스마트 레시피도 지원해 활용도를 높였다.

한편 스테인리스 이너팟 무료 증정 행사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쿠쿠 아메리카 공식 웹사이트(cuckooameri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QR코드 스캔
2.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
3.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비록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bostonkorea.com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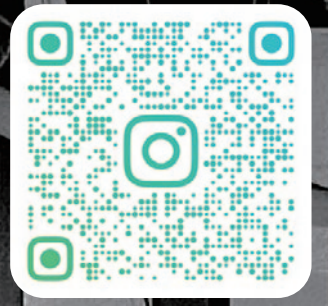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사전 승인 대폭 폐지... 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1면에 이어서

주까지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의료 남용과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치료 지연으로 이용이 줄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참지 못한 환자들을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은 결국 환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보험 심사로 인한 진료 지연과 행정 비용이 사전 승인으로 절약하는 비용보다 더 커지며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주정부의 지적이다.

프레밍햄 찰스리버메디컬어소시에이츠에서 내과 전문의 및 주치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용현 박사는 이번 개선이 “의미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는 단순한 서류 한 장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인 서류 제출, 보험사와의 전화 통화, 추가 자료 요청, 재심 요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뿐 아니라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그만큼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표준적인 검사·치료에서도 사전 승인을 기다리느라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는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도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당뇨병 환자는 질 환과 관련된 검사, 의료기기, 약물 전반에 대해 더 이상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은 최소 3개월 동안 그대로 인정된다.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환자가 재발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24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치료 지연을 줄이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서류 처리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 의료진이 행정 업무보다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현 원장도 “이번 개편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장 큰 부담은 ‘불필요한 승인대기 시간’과 ‘행정업무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앞서 지적했다 행정 비용 문제도 이번 개편의 중요한 배경이다. 저렴하고 좋은 헬스케어 위원회(Council for Affordable Quality Healthcare)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의료 업계는 사전 승인과 관련된 행정 비용으로 약 13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건강 행정 처리 비용은 약 6달러에 달한다. 매사추세츠는 사전 승인 사용을 표준화하고 제한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개선과 함께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필수 의료 사전 승인 폐지는 의료부분 전체적인 사전 승인 폐지가 아닌 선택적인 폐지를 의미한다. 주 정부는 MRI를 비롯한 고가의 검사, 고가의 약물 등 당초 사전 승인 제도가 의도했던 의료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에는 여전히 허용한다.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은 결국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보험사 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of Health Plans)가 의뢰한 밀리먼(Milliman)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승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보험사들은 개인당 매년 \$600-1,500까지 추가 비용



을 지출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협회의 로라 펠리그리니 대표는 “사전 승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남용을 막고 증거 기반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환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리먼의 보고서는 전면적인 사전 승인의 폐지를 가정하고 과거에는 포기했던 치료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의료남용까지 포함한 계산이며, 더구나 행정비용감소, 치료 지연 개선으로 인한 장기 비용 감소 등은 아예 고려하지 못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이 선택적인 폐지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비용증가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힐리 주지사는 “의료가 너무 많은 사람들

에게 여전히 어렵고 비싸다”며 “필요한 치료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의료비 부담 완화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의료비 상승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낭비, 가격 책정 관행, 시스템 비효율 등을 점검해, 환자와 가정, 고용주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는 이번 사전 승인 개편이 단기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미 의료제도의 문제점인 의료비 상승 구조 자체를 손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신용카드 임시 이자율 10% 상한제, 소비자에게 오는 혜택은?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부터 시행, 시행방식 법적 근거 설명안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는 '임시 상한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1월 20일부터 시작되길 원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자율 20%에서 30%, 그 이상까지 부과하며 미국 국민을

착취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고 주장했다. 이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카드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법 위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이자율 10% 임시 상한제' 를 문답식 해설 기사로 다뤘다. 보스톤코리아는 이중 소비자가 어떤

〈전체 기사 읽기〉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란 관점 중 심으로 기사를 구성해 보았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자 부담의 급감이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약 23%로, 이는 수십 년간 한 번도 1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 구조에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소비자가 매달 카드사에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가계 전체가 연간 약 1천억

달러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효과는 더욱 분명하다. 잔액 5천 달러를 기준으로 연 24% 이자율에서는 매달 약 100달러를 이자로 내야 하지만, 이자율이 10%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는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차이만으로도 원금 상환 속도는 크게 빨라지고, 1년 기준 수백 달러의 순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소비자가 얻는 것은 '구조의 투명화' 다. 그동안 신용카드 시장은 고금리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기반으로 돌아가면서, 포인트·캐시백·마일리지 같은 이른바 '혜택' 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이 혜택은 본질적으로 카드사의 장사 수단이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는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였다. 이자율 상한제는 이 같은 구조를 흔들면서, 혜택 대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드러내는 효과를 낳는다. 카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빼앗는 문제라기보다, 고금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던 유인책이 약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매달 잔액을 이월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포인트 및 퍼센트보다 이자율 인하가 훨씬 큰 실익이다. 세 번째로 얻는 것은 상환의 숨통이다. 높은 이자율은 소비자가 빚을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악순

환을 만든다.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원금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가계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존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드사들이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 한도 축소나 신규 사용 제한에 나설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 관점에서는, 무제한 신용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고금리 빚을 떠안기는 관행이 제동을 걸리는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임시상한제' 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법적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자율 상한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공화 양당 모두에서 과거 유사 법안이 발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논의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지만 월가의 은행들이 결코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한제가 기존 잔액에 적용되는지, 신규 사용분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WSJ는 과거 논의됐던 이자율 제한 법안들은 대체로 신규 사용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원데이 무료체험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세요!

기미 / 잡티 / 리프팅 / 탄력 / 미백 / 여드름 / 아토피

Esther TL SGM ICD **781.454.1357**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새해엔 아침형 인간?... 새벽 5시 기상을 다룬 기사가 화제인 이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새해를 맞아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함께 '새벽 5시 기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른 기상을 통해 운동과 자기계발, 업무 효율을 동시에 잡았다는 성공담이 넘쳐난다. 그러나 최근 웰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수면 관련 기사는 이 유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화제가 된 기사의 핵심은 단순하다. 새벽 5시 기상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수에게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면 전문가들은 특히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경우, 억지로 이른 기상을 시도하면 짧은 기간만 버티다 자괴감과 우울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만성적인 수면 부족 문제가 있다. 충분히 자고 싶지만 스트레스와 업무, 생활 패턴 때문

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잠을 잔다는 응답자 비율은 수십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운동, 개인 시간, 업무 성과를 이유로 수면을 가장 먼저 줄인다.

전문가들은 '몇 시에 일어나느냐'보다 '나에게 맞는 시간에, 꾸준히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생체 리듬, 이른바 크로노타입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전에 강한 사람도 있지만, 한낮에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람, 밤에 더 생산적인 사람도 있다. 다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효율이 높은 유형에 속한다.

문제는 새벽 5시 기상이 자기관리와 성공의 상징처럼 소비된다는 점이다. 기사는 이런 인식 자체가 수면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짚는다. 수면은 줄여서 이겨낼 대상이 아

〈전체 기사 읽기〉
나라, 건강과 생산성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아침 햇빛을 쬐며,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고, 운동은 가능하면 아침에 하라는 조언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활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기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분명하다. 새해마다 반복되는 '극단적 자기관리' 열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자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기상에 대한 경고는 유행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면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놓자는 제안에 가깝다.

hsb@bostonkorea.com

패트리어츠 7년만에 플레이오프 첫 승리, 차저스 16대 3 격파

메이의 결정적 TD 패스, 패트리어츠 수비가 허버트 압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7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다. 패트리어츠는 1월 11일 팍스보로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차저스를 16-3으로 제압하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했다.

승부의 분수령은 4쿼터였다.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는 타이트 엔드 헌터 헨리에게 정확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공격에서는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플레이를 만들어냈고, 수비는 차저스 공격을 철저히 봉쇄했다. 이는 승리로 연결됐다.

패트리어츠 수비는 차저스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를 여섯 차례 색으로 잡아내며 압도했다. 결국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던 차저스의 오픈시브 라인이 이날도 쿼터백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스트립 색으로 펄블을 유도해 곧바로 패트리어츠의 터치다운으로 이어졌다. 차저스의 총 공격 야드는 207야드에 그쳤고, 허버트는 패싱 159야드, 러싱 57야드를 기록했지만 끝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허버트는 플레이오프 통산 3전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메이는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29회의 패스 시도 중 17번을 성공시키며 패싱 268야드를 기록했고, 러싱으로도 팀 내 최다인 66야드를 보태며 공격을 이끌었다. 인

터셉션과 펄블이 각각 한 차례 있었지만, 차저스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키커 앤디 보레갈레스는 세 차례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키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다.

경기 전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선수들에게 1월의 플레이오프는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종료 직전 밀턴 윌리엄스가 허버트를 색으로 잡아내며 승리를 확정지은 뒤, 브레이블 감독에게 달려들어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입술이 터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브레이블 감독은 큰 경기에서는 큰 선수들이 나선다며 웃어 넘겼다.

공격에서는 러닝백 라몬드레 스티븐슨의 역할도 빛났다. 스티븐슨은 중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하며 공격의 균형을 잡았고, 4쿼터 초반 연속된 전진 플레이로 메이의 터치다운 패스를 뒷받침했다. 이후 차저스의 마지막 반격 시도도 패트리어츠 수비의 압박 속에 무산됐다.

이번 승리로 패트리어츠는 2018시즌 슈퍼볼 우승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승리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15승 3패를 거둔 패트리어츠는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휴스턴과 피츠버그 경기의 승자를 홈에서 맞이한다. 반면 차저스는 2년 연속 와일드카드 탈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파월의 공개 반격, 시험대에 오른 연준 독립성

파월의 공개 반격이 던진 세 가지 쟁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 중앙은행 역사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도 파월도 그동안의 웨도우 복싱을 끝내고 링 위에 올라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사란 카드를 꺼냈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에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파월은 트럼프의 반복적인 공개 비판에도 중립적 언어와 거리두기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상 성명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섰다. 이는 개인

방어를 넘어, 압박이 은밀하게 작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과 대중에게 사안을 공개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 시스템의 핵심 축인 연준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미국 제도하에서, 독립 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 수사라는 전례 없는 압박 수

〈전체 기사 읽기〉

단 핵심은 '수사 그 자체'보다 '수사의 성격'이다. 현직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정책과 무관한 사안으로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례가 없다. 파월은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 문제는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 목적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행정부가 정책적 불복을 형사 리스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시장과 차기 연준 의장에 남긴 질

문 이번 사태의 파장은 파월 개인을 넘어선다. 투자자들은 "대통령의 뜻에 반하면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과연 독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다. 정책 판단을 위해 정치적·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물인가가 핵심 검증 요소로 떠올랐다.

연준 독립성의 시험대

미국 대통령들이 금리 정책에 불만을 표출한 역사는 길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법 권력이 전면으로 등장

한 사례는 드물다. 연준의 독립성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안정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미국 통화정책의 신뢰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명의 연준 의장이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연준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파월의 공개 반격은 그 시험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editor@bostonkorea.com

2026 보스턴 NEW 카페 & 베이커리 탐방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2026년 새해를 맞이해 보스턴의 카페 & 베이커리 씬이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프렌치-아시안 퓨전부터 일본식 말차 전문점, 유럽식 아티장 베이커리, 그리고 화제의 베이글 전문점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신규 매장들이 보스턴 전역에서 문을 열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각 매장은 독특한 컨셉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스턴 식문화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이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와 빵을 파는 곳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아침 커피 한잔부터 오후의 달콤한 디저트, 저녁의 여유로운 아페리티보까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방문하더라도 특별한 순간을 선사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보스턴에 새롭게 오픈한 4곳의 카페 & 베이커리를 소개한다. 각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와 분위기, 그리고 방문 정보를 담았으니, 새로운 맛의 여행을 떠나보자.

팝업 베이글(PopUp Bagels) - 갓 구운 신선한 베이글 전문점

보스턴 시포드에 새롭게 자리한 'PopUp Bagels(팝업 베이글)'은 신선하게 구워낸 따뜻한 베이글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완벽한 베이글로 유명세를 탔다. 커네티컷주 웨스트포트(Westport)의 한 가정에서 팬데믹 기간 중 실험적으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현재 커네티컷, 뉴욕, 그리고 보스턴 전역으로 확장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팝업 베이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량 배치(Small Batches)로 베이글을 구워 항상 따뜻하거나 뜨거운 상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에브리씽(Everything), 플레인(Plain), 파피시드(Poppy), 솔트(Salt), 세서미(Sesame) 등 다양한 종류의 베이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새롭게 바뀌는 스페셜티 슈미어

(Schmear, 크림치즈)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베이글을 찢어서(Rip-and-Dip) 크림치즈 통에 직접 찍어 먹는 독특한 먹는 방식도 화제다. 온라인 사전 주문을 통해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픽업할 수 있다.

주소: 70 Pier 4 Blvd, Ste 330, Boston, MA 02210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매일

웹사이트: <https://www.popupbagels.com/>

엘리펀타인 베이커리(Elephantine Bakery) - 유럽 감성의 베이커리

엘리펀타인 베이커리(Elephantine Bakery)는 포트 포인트/시포트 지역에 위치한 유럽풍 아티장 베이커리 & 카페로, 2025년 벨리(Beli)가 선정된 보스턴 최고의 신규 베이커리 1위에 올랐다. 뉴햄프셔 포츠머스(Portland)에서 시작해 보스턴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 이곳은 프랑스 전통 기법으로 매일 손수 만드는 크루아상, 페이스트리, 빵으로 유명하다.

매장은 우아한 카페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 점심, 브런치, 커피, 그리고 저녁 아페리티보(Aperitivo)를 제공한다. 오너인 셰리프 파라그(Sherif Farag)는 파리의 페란디(Ferrandi)에서 유명 제빵사 디디에 샤프(Didier Chaput)의 지도 아래 빵과 비엔누아즈리(Viennoiserie)를 공부했으며, 그의 아내 나딘(Nadine)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커뮤니티를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엘리펀타인이라는 이름은 4000년 전 고대 제빵소가 있었던 나일강의 엘리펀타인 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빵이 인간 경험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위치를 상징한다.

주소: 332 Congress St, Boston, MA 02210

영업시간: 일-수요일(Sunday-Wednesday) 오전 8시-오후 3시 / 목-토요일(Thursday-Saturday) 오전 8시-오후 3시, 오후 5시-오후 8시 (아페리티보)

웹사이트: <https://www.elephantinebakery.com/>



미즈 말차(Mizu Matcha) - 일본식 말차 디저트 & 젤라토 전문점

미즈 말차(Mizu Matcha)는 뉴베리 스트리트(Newbury Street)에 위치한 모던 재패니즈 스타일의 말차 디저트 & 음료 전문점이다. 이 매장은 순수함, 장인정신, 그리고 균형 잡힌 풍미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제작된 프리미엄 말차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미즈 말차의 가장 큰 특징은 5단계 말차 강도 시스템이다. 고객은 부드럽고 상쾌한 맛부터 진하고 깊은 풍미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말차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Strawberry Matcha Latte), 치즈 무스 말차 티(Cheese Mousse Matcha Tea), 호지차 라떼(Hojicha Latte)가 있으며, 우베(Ube), 호지차(Hojicha), 참깨(Sesame) 등 다양한 맛의 젤라토와 소프트 서브도 인기가.

주소: 217 Newbury St, Ste B, Boston, MA 02116

영업시간: 매일(Daily) 오후 12시-오후 10시

웹사이트: <https://www.mizumatchaus.com/>

푸플 베이커리(Fuful Bakery) - 프렌치-아시안 아티장 베이커리

주소: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영업시간: 월-금요일(Monday-Friday) 오전 8시-오후 5시 / 토-일요일(Saturday-Sunday)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fufulbakery.com/>

아시아 베이킹 전통을 결합한 아시안 아티장 베이커리다. 보스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이곳은 프랑스 전통 제빵 기법과 아시아의 풍미를 조화롭게 결합한 페이스트리와 빵을 매일 신선하게 구워 제공한다.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 영양학 졸업생인 오너 Janet 주(Janet Ju)는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베이킹을 시작했고, 파리의 르 코르도뉴 블루(Le Cordon Bleu)에서 프랑스 제빵 기술을 마스터한 후 자신만의 베이커리를 열었다.

푸플 베이커리는 최상급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며, 바삭한 페이스트리부터 든든한 빵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매장은 고객 만족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침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로 가득하다. 다이어트 초콜릿 같은 트렌디한 메뉴부터 판단 케이크(Pandan Cake), 모치 도넛(Mochi Donut)까지 아시안 풍미가 가득한 베이커리를 경험할 수 있다.

주소: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영업시간: 월-금요일(Monday-Friday) 오전 8시-오후 5시 / 토-일요일(Saturday-Sunday)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fufulbakery.com/>

주소: 217 Newbury St, Ste B, Boston, MA 02116

영업시간: 매일(Daily) 오후 12시-오후 10시

웹사이트: <https://www.mizumatchaus.com/>

푸플 베이커리(Fuful Bakery) - 프렌치-아시안 아티장 베이커리

주소: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영업시간: 월-금요일(Monday-Friday) 오전 8시-오후 5시 / 토-일요일(Saturday-Sunday)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fufulbakery.com/>

주소: 217 Newbury St, Ste B, Boston, MA 02116

영업시간: 매일(Daily) 오후 12시-오후 10시

웹사이트: <https://www.mizumatchaus.com/>

푸플 베이커리(Fuful Bakery) - 프렌치-아시안 아티장 베이커리

주소: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영업시간: 월-금요일(Monday-Friday) 오전 8시-오후 5시 / 토-일요일(Saturday-Sunday)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fufulbakery.com/>

주소: 217 Newbury St, Ste B, Boston, MA 02116

영업시간: 매일(Daily) 오후 12시-오후 10시

웹사이트: <https://www.mizumatchaus.com/>

푸플 베이커리(Fuful Bakery) - 프렌치-아시안 아티장 베이커리

주소: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영업시간: 월-금요일(Monday-Friday) 오전 8시-오후 5시 / 토-일요일(Saturday-Sunday)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fufulbakery.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턴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AI 시대에 '인간의 신비한 영역!!'

우리는 지금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판단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이는 묻는다. “이제 인간은 AI와 무엇이 다른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이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 안에 있는 ‘신비한 영역’ 을 선포해 왔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AI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이다. 인간은 ‘기능’ 이 아니라 ‘형상’ 이다. AI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예를들면 계산, 예측, 학습, 모방 등. 그러나 인간은 기능이 전에 존재 자체로 선언된 존재이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다. 성과, 속도, 효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에 있다. AI는 흉내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 을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은 ‘창조됨’ 과 동시에 ‘관계로 부름받은 존재’ 이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호출하시는 분이시다. 이름을 부르시고, 응답을 기다리시고, 관계 속에 세우신다. AI는 호출에 반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spirit)’ 이 있다. 인간에게는 ‘영의 영역’ 이 있다. AI는 데이터 처리를 한다면, 인간은 영적 인식을 한다. 기도, 예배, 회개, 경외, 갈망이 모든 것은 ‘영의 언어’ 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 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 3:11) AI는 목표를 계산하지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한다. 죽음을 묻고, 의미를 묻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갈망 자체가 ‘인간의 신비’ 이다.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이 바로 ‘마음과 양심’ 이다. 마음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AI는 판단하지만, 양심으로 고통받지는 않는다. 죄책감, 눈물, 회개의 탄식,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리이다. 상처의 눈물의 신비도 마찬가지다. AI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 하신다. 인간의 약함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다.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생’ 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AI는 감정을 모방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할 수 없다. 십자가는 AI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계산 불가능한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은혜, 조건 없는 희생 그 한없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이다.

AI 시대, 인간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AI 시대는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시대’ 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인간의 최고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다.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AI가 읽는 한담객설 (II)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평론가 유중호의 변遷이다. 남 흉내를 내거나 말이 상투적이고 개성이 없다면 좋은시가 될수 없다. 또한 시인 신경림은 좋은 시는 잘 외워진다고도 했다. 그러나 압권은 시인 윤동주이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지는 시 중에서) 이젠 AI가 시도 쓴단다. 만편 이상의 시를 학습하고 난 후에 썼다는 거다. 그 중 한편인데, 읽기는 어렵지 않다. ‘사랑은 눈이 멀

었다/그래서 나는 그대를 다치게 했다./나는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다. (인공 지능) 이 시를 내 스스로 판단 할 수는 없다. 이 시가 시다운 시인지 아닌지 말이다. 좋은 시인지 잘 외워지는 시인지 아니면 쉽게 쓰여진 시인지, 그것도 모르겠다. 읽어도 별 감흥이 일지 않았고, 구절은 어디 선가 읽었다 싶기 때문이다. 피천득선생은 시인이다. 또한 대수필가이기도 하다. AI는 한담

객설이 피천득선생의 글냄새가 나는 수필이라 구분한다. 한담객설은 언어의 풍성함과 더불어 따뜻한 정서가 풍기는 글이라 평한 거다. 읽기에 과하다 싶고, 얼굴만 뜨거워진다. 연이어 한담객설에 대해 AI에게 물었다. 답변이 났는데 대충 추리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주제와 함께,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이다. 성찰적이고 사색적인 어조. 깊은 울림과 함께, 철학적이며 종교적임. 작가 고유의 품위와 격조있는

문체인데, 기교보다는 진솔함이 묻어 나오는 절제된 문장. 또한 대상을 뚫어 보는 예리한 시선과 통찰 그리고 관조적 사색이 기반이란다. 결혼식 주례사가 아닌가 싶고, 이젠 해설을 넘어 평론까지 간다. AI가 평론가 행세를 하는 거다. AI가 시평론도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냄새는 나지않을 텐데, 예술가나 과학자나 시인의 열정과 고뇌는 AI가 담아 낼수는 없을

것이다. AI에게 부탁한다. 질문을 읽는다면 옮겨만 놓으라. 평가는 읽는 독자들에게 맡겨라. 선을 넘지는 말라는 한담객설 작가의 부탁인데. ‘많은 독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AI가 덧붙였는데 낮이 뜨겁다. 설마 AI가 그림도 그리는가. 같이 실린 그림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을 따라 그렸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가 9:21)

▶▶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Art in Tune

- ▶ Thursday 1/15
- ▶ \$5 admission after 5 pm



Free Admission

MLK Day

- ▶ Monday 1/19
- ▶ Includes "Winslow Homer in Watercolor"

New Galleries

Modern Art

- ▶ On view now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Arthur Garfield Dove, *Spring* (detail), 1943. Oil, possibly with wax, on canvas.
 Gift of the Stephen and Sybil Stone Foundation.

▶ Plan your visit at mfa.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 잠 깨우는 야간뇨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겨울철 추위가 바뀌는 소변 신호인 야간뇨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 경동 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평소에는 밤에 0~1번 정도 화장실을 갔는데, 겨울이 되어 최소 2번 이상 깬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피곤함이 심하다. 이는 전형적인 '겨울철 야간뇨'다. 50대 남성은 전립선 영향도 있어 잔뇨가 남은 상태에서 방광이 다시 차 밤에서 깨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겨울철에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깨는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겨울에는 소변량과 횟수가 증가한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 몸이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려고

한다. 땀은 줄어 들고 소변은 늘어나기 때문에 밤에도 소변 생산이 증가한다.

우리 몸은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해 수면 중 항이뇨호르몬(ADH)을 생산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중년이 지나면 이 조절 기능이 약해져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만들어진다. 고령일수록, 수면장애가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해진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야간 다뇨가 나타난다. 만약 야간뇨가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의 양이 많다면 혈당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생활습관도 야간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취침 2~3시간 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이며, 술은 방광을 자극하고 잠을 얇게 해 더 쉽게 깨도록 한다. 저녁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과일(수박, 배, 감귤류, 사과)도 의외로 흔한 원인이다. 과일은 수분과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은 소변량을 늘리고 수분은 밤에 방광을 채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경종 부장은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심장, 수면, 생활습관이 모두 연결된 신호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에서 야간뇨가 2회 이상 지속되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방광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겨울만 되면 야간뇨가 확 늘어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피로감이 심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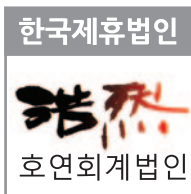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경종 부장은 "50대 이상 남성에서는 겨울 추위와 전립선 및 호르몬 변화, 당뇨가 겹쳐 야간뇨가 심해진다.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에서도 야간뇨가 흔하

로 질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60대 이상에서는 두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배뇨 패턴이 바뀌었다면 병원에서 전립선 초음파, 요속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 남성 잠 깨우는 야간뇨"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 **코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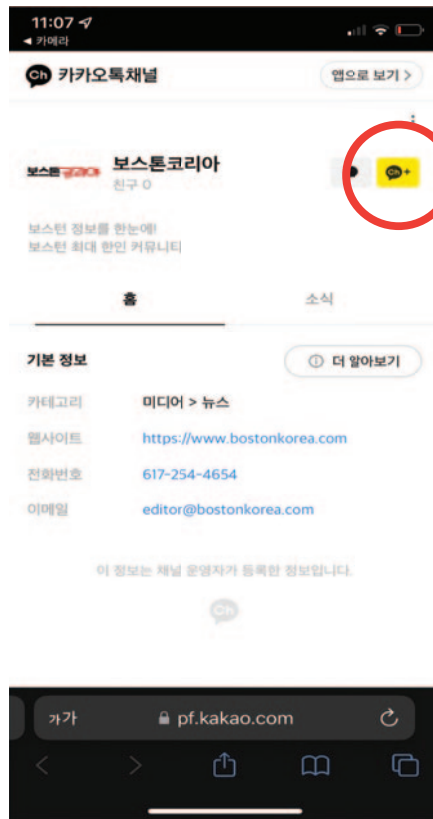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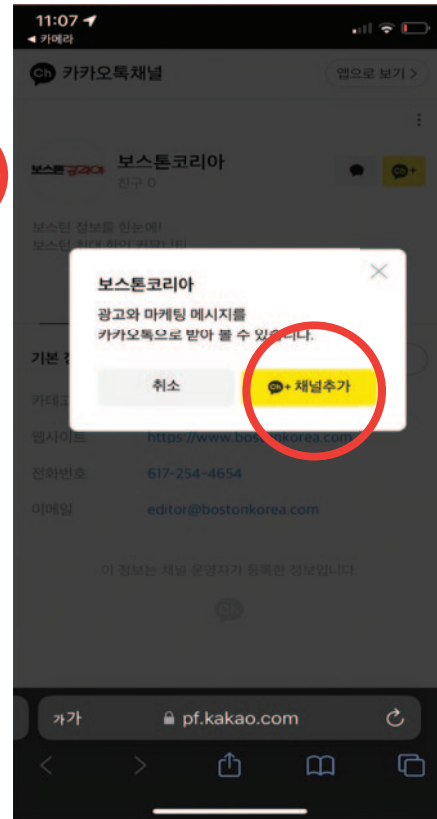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2026년 이만생활을 담당하게 다들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만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
junhey2026@gmail.com

[인류연재] 새해와 감기

몬트리올에 다녀왔다. 오래 전 남동생과 함께 한국을 떠나 맨 처음 외국 생활을 시작한 도시다. 털모자와 두꺼운 외투, 장갑으로 무장해도 현관문을 열면 찬 공기가 맨살을 할퀴듯이 눈코 입을 파고드는 겨울. 그 날카로운 온도를 한숨에 들이켰다 새하얗게 내쉬면, 단숨에 콧속을 다 얼려버리는 몬트리올이나 어느 하루 폭 풀리더니 언뱃방울이 온 동네를 탁탁 쳐대는 소리로 소란했다. 우리가 지내던 집 앞 도로는 그야말로 빙판길이었다.

그길로 옆집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신고 아이스하키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바라본 만화같은 풍경 속에 서둘러 우리 애들을 끼워넣자. 이런 몬트리올은 또 처음이다. 이렇게 한 계절의 경이와 아름다움으로 우리네 식구는 무리했다. 그 탓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서로 비슷한 증상의 감기를 앓

게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휴일 내내 마치 돌림 노래처럼 나눠 앓았다.

언제나 바라왔다. 12월의 마지막 날에는 술에 취해, 그게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도 취해 다가오는 새해를 개망나닌 채로 외면하고 싶다고 거의 망한 상태로 한해를 시작해 점점 나아지는 나날만을 새로 맞이하겠다는 장난 같은 이 소원을 올리는 온 식구가 타 이레놀과 모트린을 교차 투약하는 가운데 정신없이 이루어졌다. 엄마, 목아파, 콧물, 배아파, 나, 머리, 콧물콧물, 아파, 엄마...엄마. 아이들의 열띤 호소로 빈틈없던 하루가 저물었다. 몸져누운 방안에선 코가 막힌 남편의 숨소리가 한밤중 낭떠러지 같은 잠속을 흠뻑 적어주며 자주 가로질렀다. 그래도 우리는 감기약과 수면 부족에 만취한 몸으로 제 시간 안에 텔레비전 앞에 겨우 모여 앉아, 아니 누운채로 2025년이 2026년으로 그



이름을 무탈히 바꾸는 장면을 구경했다.

하루하루 계절을 지나오며 서서히 무디어져 간 다정함과 비장함이 슬며시 되돌아왔다. 그리하여 1월 1일 00시 00분 해마다 이찰나의, 찰나에서만 비롯되는 폭죽 같은 진심을 잠옷 바람으로 또다시 지켜본다. 이 순간 내가 아는

모든 너의 안녕을 질투 없이 바라고 내가 잘못한 모든 너를 끈질기게 반성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변함없이 나를 아는 모든 너를,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말이 될 수 없는 어떤 기운으로 사랑하고 기억한다. 우리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는 기대와 돌발로 다가올 앞으로의 나날에

첫날부터 미리 홀로 압도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무려나 이 긴긴 속마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에의 바른 한마디로 간추려져 너에게 '카톡' 가닿을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디 감기는 조심하시고요.

1월 18일 - 1월 2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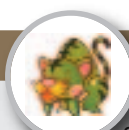
쥐띠 | 한 걸음 물러서서

● 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성격 차이가 있어서 힘든 상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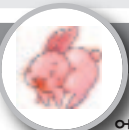
소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범띠 | 조금씩 이루어지는

● 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토끼띠 | 현실에 만족하고

● 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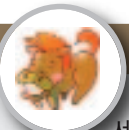
용띠 |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

● 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갈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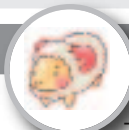
뱀띠 | 적당한 선에서

● 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4일 주의.



말띠 | 차분한 마음으로

● 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염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3일 주의.



양띠 |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 운수: 사업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9, 20일 길일, 22, 24일 주의.



원숭이띠 | 가슴을 활짝 열고

● 운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닭띠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 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9, 23일 길일, 20, 22일 주의.



개띠 | 행복하고 편안한

● 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1일 주의.



돼지띠 | 미리 대처하는

● 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Hello, Jeju

**JAN. 16th
- JAN. 29th,
2026**

**Welcome to special savings from
Korea's most cherished island!**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맛, 지금 특가로 만나보세요!



Live
Jeju Flounder
제주 활광어

\$21.99
LB



JEJUWELLING
Sea Urchin
Abalone
Seaweed
Soup
제주웰링
성게전복
미역국
14.1 OZ

\$10.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